

## 수도권·지방 문화격차 해소

### ‘광주이야기’ 발굴해

### 문화자산으로 남기겠다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위원회·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감독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뮤지컬계 미다스 손’, ‘해남 촌놈’ ‘못말리는 캠블러’ ‘뮤지컬계의 이단아’

한국 뮤지컬 신화를 쓰고 있는 신시컴퍼니 박명성(51) 대표를 일컫는 호칭이다. 박 대표가 이끄는 신시컴퍼니의 뮤지컬 맘마미아는 뮤지컬 대중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은 뮤지컬 ‘시카고’ ‘아이다’는 된다.

공연계에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그는 해남 땅끝마을 출신이다. ‘못말리는 캠블러’ ‘뮤지컬계의 이단아’는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길을 굳이 가는 그의 기질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그가 최근 대통령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내년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의 예술감독까지 맡게 됐다. 문화예술으로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조언하는 역할과 고향 ‘전라도’를 위해 현역 선수로 뛰게 되는 셈이다.

그는 “광복 70주년인 2015년 선보일 뮤지컬 ‘아리랑’과 오는 11월 무대에 올릴 뮤지컬 ‘고스트’ 제작에 여념이 없음에도 중책을 맡은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평소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전남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소신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 25일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박 대표는 이미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광주와 대구 등 지역 주요 도시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개발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각계 문화전문가들

#### 시민 공감 문화콘텐츠 개발

#### 아문화수도 지원 방안 마련

의 의견을 모은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박 대표는 “광주의 경우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빛내는 방안도 포함돼 있고, 대구, 부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 구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극배우로 문화계에 밭을 들어놓은 그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묵묵히 개척한 뚝심의 사나이로 통한다. 뮤지컬 ‘렌트’ ‘맘마미아’ ‘아이다’ 등 브로드웨이 화제작들의 한국판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국내 공연계 트렌드를 이끌었다.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숱한 좌절과 실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문화관’에서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그가 제시한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성공의 키워드는 ‘콘텐츠’였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되, 그 콘텐츠를 미래자산으로 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여주는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피우고 지역민들이 즐기는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계 핵심 인맥으로 알려진 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꿈의 사회’, 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상상력

의 사회’를 국정의 중심에 둔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국정의 중심을 문화융성으로 잡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은 국격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감독을 맡게 된 것을 ‘고향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문화예술 행사는 내년 광주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열리며, 그는 이 행사를 주도해 문화예술로 광주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요코하마, 중국의 상하이 등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문화 경쟁을 펼치게 되는 야전사령관이기도 하다.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광주 경제발전에 걸맞는 문화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광주의 전통문화, 광주의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자산으로 남기겠습니다. 고향에 모든 것을 바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작품은 연극 ‘푸른 날’에다. 5월 광주항쟁의 터널을 고고 때 지난 그는 “항상 마음속에 살아 남은 자의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연극은 5월의 짙은 흑으로 겪어낸 젊은 이들의 이야기로, 지난 2011년 첫선을 보인 뒤 지난해까지 매 공연마다 전석이 매진되는 흥행신화를 일구고 있는 작품이다. 그는 “내년에 이 연극을 반드시 광주와 대구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의 이야기지만, 전국민이 공감하는 보편성을 가진 작품인 푸른 날 예술을 광주와 대구에서 선보여 동서화합, 5월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계 핵심 인맥으로 알려진 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꿈의 사회’, 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상상력’

**2013년 2학기  
國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자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10(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15(특급반)	·월, 목 아간반: 2013. 9. 2(월) 19:00~20:00(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10(중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예금주: 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년전수과정 이수시 총점 평균 수료증 수여 ·국가평가 기준 학자교과 평생학습 활동으로 인정되는 기록부 ·각 전문학원 강사 출신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교육장과 후 교육장에서 출신 ·연수과정 중 국가평생학습기관인 사법연수원 부여	·1년전수과정 이수시 총점 평균 수료증 수여 ·국가평가 기준 학자교과 평생학습 활동으로 인정되는 기록부 ·각 전문학원 강사 출신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교육장과 후 교육장에서 출신 ·연수과정 중 국가평생학습기관인 사법연수원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8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8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아파트대출
- \* 기타대출

### 신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향살론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향살론 - 1,000만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점 | 궁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 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 ‘김영란법’ 국무회의 의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입법에 의고한 지 1년 만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와 각종 거래를 하거나, 가족을 산하기관에 특별처우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자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쟁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 ‘김영란법’의 부과공직자 제재 방안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률	처벌수준	시례 예시
1단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형법 (수수금액에 따라 특기법 적용)	형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 특기법: 1억이상: 최장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출원 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예·현행 뇌물죄
2단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불문	김영란법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관리없이 해당 업계 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예·업계 스폰서 떡값
3단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불문	김영란법	과태료 수수금액 기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 없는 제3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예·동창·연고 스폰서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을 뜻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온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엄금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관급 이상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엄금했다.

‘김영란법’은 8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조항에 대한 반발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삼반기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서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물가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6월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미용료는 1만 2874원으로 작년 말보다 1776원(16%)이나 뛰었다. 작년에 대선으로 억제됐던 지방공공요금이 올 들어 잇따라 인상되면서 택시요금은 2686원으로 같은 기간 304원(12.8%) 뛰었고, 여관 숙박료는 3만 8527원으로 4247원(12.4%) 올라 역시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비와 목욕료·이용료·세탁료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대거 올랐다. 비빔밥 한 그릇의 평균가격은 6264원으로 작년 말보다 390원(6.6%) 상승했고, 칼국수는 5811원으로 284원(5.1%) 뛰어 5%대 상승률을 보였다. 김밥은 5655원, 짜장면은 4223원으로 각각 3% 넘게 상승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0.5% 인상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g@kwangju.co.kr

## 클린디젤 기반시설 광주에 들어선다

### 내일 기공식… 그린카 보급정책 2016년까지 1871억 투입

도 지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추진중이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오는 2014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실증사업을 2018mm/km에서 80mm/km으로 제한하는 등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시장선점을 위해 국가별로 특성화된 고효율 고성능 차량을 고급화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달 1일 광산구 하남동 진곡 산단 내 디젤기술전문센터 건립 부지에서 클린디젤 기반시설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조호원 광주시의회 의장, 하남읍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협력 기관과 함께 디젤기술전문센터 건립부지에 참석한 가운데 클린디젤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된다.

건립부지 2만3375㎡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는 디젤기술전문센터, 부품성능시험실, 핵심부품소재센터에는 각종 연구장비 44종이 들어서며, 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